

# 주예수사랑교회 과테말라 선교지 성전 헌당식

주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 동사 황용석 목사)는 2월 8일 오후 2시(과테말라 현지 시간)에 과테말라 후띠아빠에서 린콘 예수그리스도사랑교회(정일천 선교사 시무) 예배당 헌당식을 거행했다. 정일천 선교사가 집례한 예배당 헌당식에는 뉴저지에서 현지로 간 주예수사랑교회의 교우들, 린콘 예수그리스도사랑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다.

1부 헌당식은 기원,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루이스 전도사의 기도, 인도자 정일천 선교사의 성경 봉독, 강유남 목사의 설교, 건축위원장 김환욱 장로의 경과 보고 및 헌건사, 열쇠를 건네 받은 정일천 선교사의 수건사, 황용석 목사의 헌당 기도, 강유남 목사의 공포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축하식은 정일천 선교사의 인사말과 김환욱 장로에 대한 공포 증정, 정일천 선교사와 레오



주예수사랑교회는 8일 과테말라 후띠아빠에서 린콘 예수그리스도사랑교회 예배당 헌당식을 거행했다. 앞줄 왼쪽부터 황용석 목사, 김환욱 장로, 마리오 장군, 강유남 목사, 김봉택 장로, 박태문 목사. 오른쪽 줄 중앙에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있는 사람이 정일천 선교사.

나르도 미글라엘 로페즈 고도이에 대한 감사패 수여, 마리오 장군의 축사, 린콘 예수그리스도사랑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축하 노래와 무용, 박태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유남 목사는 건축위원장의

로 수고한 김환욱 장로에게 공포패를, 정일천 선교사와 현지인 레오나르도 미글라엘 로페즈 고도이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수고한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